

이랜드, 광주·전남 사업확장 공격적 행보

지역 출신 오너 의지 반영 백화점·쇼핑몰 진출

특급호텔 등 관광·레저사업 추진 지역민 관심

패션·유통·레저 분야에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랜드 그룹(회장 박성수)이 최근 광주·전남 지역의 사업확장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에 백화점과 쇼핑몰을 개점한데 이어 지자체 등과 관광·레저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 일본에 SPA(제조·직매형 의류) 브랜드 매장을 열고 본격적인 글로벌화를 공언한 이랜드 그룹이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파크 등 주력 계열사를 통해 각각 패션, 유통, 레저 사업의 전면에 나서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꾀하고 있다.

3년 전 광주밀리오레를 인수하며 광주 입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이랜드는 잠시 주춤하다가 최근 백화점

과 쇼핑몰을 동시에 개장하며 지역민에게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랜드 그룹의 전라도 지역 체널은 NC백화점 순천점을 제외하곤 전혀 없는 상태였다.

업계에서는 이랜드가 주력 SPA 브랜드로 해외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NC백화점과 쇼핑몰을 신규로 출점시켜 내수 유통 체널을 넓히는 두 트랙 전략으로 사업확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랜드는 지난 3년여간 전국적으로 3개의 점포를 새롭게 열어 총 43개 광주 입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이랜드는 잠시 주춤하다가 최근 백화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랜드 그룹이 기대를 걸고 있는 또 다른 사업은 통합 레저 부문이다. 이랜드파크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해 호텔사업과 테마파크를 개발하고 있다.

이랜드는 내년 7~8월께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250실 규모의 특1급 호텔인 '켄싱턴 제주'를 개장하기로 하는 등 총 4개의 호텔과 8개의 콘도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광주의 특급 호텔 건립 사업과 관련 박성경 그룹 부회장이 광주를 직접 찾아 헬리콥터를 타고 호텔건립 후보지를 물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광주에 백화점과 10·20대를 겨냥한 쇼핑몰을 동시에 개점하고 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글로벌화와 내수시장의 유통 체널 확보라는 그룹 프로젝트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지역 출신 오너의 '향토애'가 반영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고향 지역에 애정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이다"며 "향후에도 지방 경제 활성화와 그룹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 광산구청에 장학금 4000만원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는 최근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인재 육성에 써달라고 광주시 광산구청(청장 민형배)에 장학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금감원 직원 평균 연봉 9000만원 넘어

금융감독원의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돌파했다.

금융 감독이라는 권한을 전 금감원이 '고객 연봉'으로 인한 질시의 대상인 금융공기업과 대형 금융사의 보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지난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금감원 1인당 평균 연봉은 9196만원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공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 8700만원보다 500여만원이 많았다.

금감원 직원 연봉은 기본급이 평균 5076만원, 고정 수당이 2707만원, 성과 상여금이 683만원, 실적 수당이

541만원, 급여성 복리 후생비가 186만원에 달했다.

공기업 내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금융공기업 중에서도 금감원보다 직원 연봉이 높은 곳은 한국거래소(1억9000만원), 예탁결제원(9700만원)밖에 없다. 295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6200만원이었다.

금감원 직원 연봉은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7800만원)보다 훨씬 높다. 제조업 최고 임금 받는 현대자동차(8900만원)보다도 많다. 중견 제조업의 평균 연봉은 3000만~4000만원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영산강 하천정화 '휴공' 던지기 전남농협(본부장 박중수)과 나눔축산운동본부 전남도지부(지부장 구희우)는 지난 27일 나주시 영산강체육공원에서 나주시, 나주축협, 나눔축산물공판장, 농협사료나주공장 관계자와 축산농가,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을 맑고 푸르게'라는 주제로 '나눔축산 하천정화운동'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이 수질정화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휴공'을 던지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돼지고기 품질 등급 간소화

7단계서 4단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돼지고기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가 품질 수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돼지고기 등급 표시를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돼지고기 등급은 1+A, 1A, 1B, 2A, 2B, 2C, 등의 7단계로 분류돼 있으나 앞으로 1+, 1, 2, 등의 4

단계로 간소화된다.

등 지방두께가 지금보다 얇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외상 유무나 근육제거 여부 등 육질 평가 항목을 추가해 품질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급판정 기준을 개정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품질 수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돼지고기 소비 촉진이 크게 기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은행, 대출금리 일제히 인상

이자부담·신규 대출수요 위축 ... 부동산 경기 '찬물'

대출금리 상승세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적격대출은 물론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금리가 오르는 추세다. 기존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신규 대출수요는 위축시켜 부동산 경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지난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에는 주요 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시중은행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대출금리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직장인 신용대출의 금리를 기존 연 4.46~6.63%에서 4.55~6.72%로 올렸다. 이 은행은 적격대출의 경우 연 4.27~4.72%에서 연 4.40~4.85%로 인상했다.

농협은행은 직장인 신용대출(연 4.33~7.32%→연 4.44~7.39%), 적격대출(연 4.06~4.36%→연 4.31~4.50%), 채움고정금리 모기지론(연 3.66~3.81%→연 3.91~3.95%) 등 주요 상품의 금리를 일제히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신용대출 상품인 '엘리트론'의 금리를 기존 연 4.84~6.64%에서 4.95~6.75%로 올렸다.

외환은행은 적격대출의 금리를 연 4.06~4.41%에서 연 4.41~4.68%로,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를 연 4.65~6.44%에서 연 4.70~6.49%로 인상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또한 적격대출의 금리를 올렸다.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 때문에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사상 최저 수준인 2.66%로 떨어졌지만, 이후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대출금리의 전방위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에게도 큰 부담을 안겨줄 전망이다.

신용대출의 만기가 돌아와 이를 연장해야 하는 기존 대출자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주택담보대출자 모두 인상된 대출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4월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주택금융공사 양도분 포함)의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9천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은행대출 비중은 22.0%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금리 오르지... 돈 빌려 집 산 사람 '한숨 푹푹'

"은행에 의한 금여삭감"

하우스푸어 고통 심각

대출금리가 일제히 오르면서 대출 이용자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대출 이자 부담에 등골이 휘던 사람들에게 금리 상승은 재정상으로 '급여 삭감'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신규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금리인상 여파로 사회 문제까지 대두된 '하우스푸어'들이 대표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지난해 신혼집을 장만하느라 은행으로부터 1억여원의 빚을 졌다는 회사원 서모(33)씨는 "금리가 다시 오르는 상황을 상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막상 소식을 들으니 걱정이 앞선다"며 "나 같은 사람에게 금리 인상이 급여 삭감과 뭐가 다르겠느냐"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자율이 0.3% 포인트 올라가면 1억원을 빌린 사람은 연 30만원, 2억원을 빌린 사람은 60만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저금리 때와는 정반대로 변동금리 대출자의 표정이 어둡다. 국내 가계대출의 78%를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금리 변동 추이

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사이트를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일부 대출자는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추이를 지켜본 뒤 신중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리 상승세의 지속 여부를 지켜본 뒤"라는 전제를 깔고 "변동금리 대출자는 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별한 기회

광주 MBC 에어드림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이루십시오

박동한
광주 MBC 아나운서, 문화사업국장, 행사팀 대담교수

양종아
광주 MBC 아나운서, 광주 MBC 아나운서

황정숙
KBC 동양방송 토크리더, KBS 광주방송총국 MC

장문정
광주 MBC MC, 리모터, 광주교통방송 MC

최이연
TBN 광주교통방송 MC, 리모터, 광주 MBC MC, 리모터

최인수
TBN 광주교통방송 MC, EBS 교육방송 리모터, 전남대 평생교육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강사

방송진행자 | 일반인 스피치 | 방송구성작가 | 디베이트(토론) 교사 | 대학생 취업 면접 | 힐링스피치 클럽

교육문의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9(대여동, 한예종빌딩 3층) (주)일과 사람 / 전화: 062-234-0800 / 팩스: 062-234-0801 / 홈페이지: www.lnhac.com